보도 자료	차별엔 저항해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1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3년 3월 10일(금)
담당	양은주 010-2471-1590	페이지	총 7매
제목	**전북교육감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요구 기자회견**		

특수교육 필요한 아동, 교육청은 나몰라라
전북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즉시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3. 3. 13(월) 오전 10:3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0. 참가단체 소개	
1. 여는발언	송진우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
2. 연대(투쟁)발언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운영지원국장)
3. 부모발언	이창호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 진행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기자회견문>

특수교육 필요한 아동. 교육청은 나몰라라
전북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즉시 보장하라!!

3월은 비장애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설레는 시간이겠지만, 장애아동에게는 의무교육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학교 입학조차 당연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게 현실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애학생 A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작년 전주의 J초에 입학해 1학년을 통합학급에서 보냈지만, 2학년부터는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해 A의 부모님은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며 혼자서 싸웠습니다. 6개월 동안 학교장을 설득한 끝에 학교장은 전북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건의에 대해 반려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반려 이유는 J초의 특수학급의 학생수 기준 미달 때문입니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 할수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대상자가 3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입니다.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있는데 특수학급 신설을 하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1명 이상이면 특수학급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전북교

육청은 따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인가요? 전북교육청의 논리 대로라면 3명이 안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은 어쩌란 말인가요? 전북교육청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비장애 학생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배치됩니다. 장애학생도 동일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장애학생 103,695명중 72.8%(75,462명)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특수학급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애학생은 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야 하나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앞에 우리 사회는 왜 이리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달고 있나요? 예산보다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회라면 학생 수가 1명이라도 그에 따른 교사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배제이고, 차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수개월 이상을 싸워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3. 3. 13(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학부모 1인의 투쟁기록>

【본교는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1학년) 학부모 1명이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자 질의 결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신청해 보라는 답변을 받아 공문 제출하오니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미달(1명), 여유 교실 부족(정규교실 확보 어려움) 등】

⇒ 00이 학교에서 교육청에 특수학급 신설 신청을 하며 '학교 현황'란에 적은 글이다. 지난 한 해, 교장선생님과 반년 이상 싸워서 결국 특수학급 신설 신청을 하기로 답변을 얻었었다.

"해마다 입학하는 비장애 학생들의 교실 공간도 부족하다. 현재 1명 밖에 없는 아버님 아이만을 위해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는 없다. 나는 교장으로써 모든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특교자가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알 수 없지 않나. 개교 이래 처음 특수학급 신설 요구를 받았다. 학교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 00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 1천명이 넘는다. 그런 학교가 2002년 개교 이래 20년 동안 특수학급 신설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왜? 교장선생님께 말했다.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에 특수교사, 특수학급이 없는 건, 지체장애인들에게 엘리베이터가 없고, 여성들에겐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것과 다름 없다. 지난 20년 동안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건 동네에 발달장애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한 학교였단 뜻이다.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가야하고, 왜 아침마다 집 앞 학교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야 하나? 개교 이래 처음 받은 요구라고? 발달장애 부모들은 지난 몇 십년을 외쳐왔다. 선생님이 그동안 듣지 않은 것이지, 처음 하는 요구가 아니다.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급 공간도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지 말라.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아이들에는 장애 아이들이 없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결국 교장선생님은 마지 못해 특수학급 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특수학급 편

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차피 안 될 거고 자신의 책임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전북도교육청은 특수학급 편성 요건 신설 기준으로 '특수교육 학생 수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를 요구하고 있다. 각 교육청들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찾아봤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운영계획에 이러한 신설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았다. 충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2년 이상 유지 가능' 이었다.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으로 이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 27조에는 분명히 1인 이상부터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설치 할 수 있다'도 아니다. 그럼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어째서 '3명 이상, 3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가? 교육청의 자의적인 기준이 법률보다 우선 하는가?

00이 학교와 특수학급 신설 신청 문제로 싸울 때, 주변에서 다른 특교자 부모들을 찾아 설득해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조언해주신 분들이 있었다. 맞다. 그동안 장애 부모들이 많이 택했던 방식이다. 단지 특수학급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 방법이 빨랐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왜 그래야 하나? 분명히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왜 교육청의 불합리한 조건에 우리가 맞춰야 하나? 그래서 홀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으로도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 이후 다른 부모님들이 집 앞 학교에 특수교사,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초등학생 266만 4278명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은 48,448명이다. 전체의 1.8%다.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2001)'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11세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나타났다. 예산 문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함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 00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1천명이 조금 넘는다. 그렇다면 단순 통계상 이 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8명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 큰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00 한 명인걸까? 17명의 다른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

집에서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전교생이 400명 좀 넘는 이 학교에는 올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12명이다. 통계상 7-8명이 있어야 할 학교에 4-5명 정도나 더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 동네에는 있어야 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없고, 저 동네에만 유독 많은 이유가 있는 걸까?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장애부모들은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차마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를 가거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아이를 진학시킨다.

나도 그래야 했을까?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옆 학교에 00이를 보내야 했을까? 00이는 현재 등하교를 혼자서 한다. 요즘은 태권도장이 끝나면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자주 놀다 집에 들어온다. 놀이터에 나가보면 이미 학교와 학원에서 함께 한 친구들이 00이를 이해하며 함께 노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옆 학교를 갔다면 00이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었을까? 옆 학교를 갔다면 동네 친구들은 처음 만나는 00이를 이해하고 함께 놀 수 있었을까? 통합은 멀리 있지 않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니는 데서 시작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없다면 장애 이해 교육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놀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다니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장애 이해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단지 1명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 신청을 거부했다. 1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서는 특수학급 신설을 할 수 없다고? 아니다. 단지 1명이 아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00이를 포함한 18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차별한 것이다. 그것도 20년 동안 차별한 것이다. - 00이 학교는 2002년에 개교했다. - 또 차로 5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옆 학교 또한 그동안 과밀로 피해를 받았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03,695명이다. 이 숫자가 적은가? 이 아이들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전에 단지 학생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도 집 앞에 있는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장애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다양성의 하나라고? 거짓말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장애인에게 집 앞 학교에 갈 권리 따위는 없으니 부모가 직접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찾아 보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아이의 장애를 불행으로 느끼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제 더 이상 00이만을 위해 특수학급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 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개설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라. 지금 당장.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이 집 앞 학교를 고민없이 진학할 수 있게 하라. 지금껏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켜라.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불행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